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생활행동지수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a Stress and index of Living Activit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최정희*, 조성제¹

¹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Jung-Hee Choi* and Sung-Je Cho¹

¹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생활행동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N구에 거주하는 입소노인과 강원도 횡성군 S면 거주하는 입소노인 110명 대상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방법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입소 중후군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가족왕래부족 스트레스와 정의 상관이 있었다. 둘째, 우울증상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개인시공간부족, 가족왕래부족 스트레스와 정의 상관이 있었다. 셋째, 체중조절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개인시공간부족 스트레스와만 정의 상관이 있었으며, 영양결핍증상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가족왕래부족 스트레스와만 정의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입소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생활행동지수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resent paper examined the stress and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dex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nursing homes.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110 seniors in the N-district of Seoul, and S-myeon, Hoengseong-gun, Gangwon Province from May 1 to September 30, 2013. For data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WIN18.0 program.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was made at a significance level of 5 percent. The findings from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location syndrome into nursing homes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tress of deficient family visits in the category of daily stresses; second, depression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tresses of deficient private time and space and deficient family visits in the category of daily stresses; third, weight control has a positive correlation only with the stress of deficient private time and space in the category of daily stresses, whereas a nutrition deficiency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tress of deficient family visits in the category of daily stresses. These findings may serve as ground source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regarding the stresses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and ADL index of the elderly in nursing homes.

Key Words : Nursing Facilities; Stress; Life action figure; Depression Symptoms; Senior admission; Syndrom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노인인구의 고령화추세로 노인부양문제가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제문제, 의료문제 뿐 아니라 노인부양에 따른 스트레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로 인해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 Jung-Hee Choi(Dongbang Gradute Univ.)

Tel: +82-10-2962-0075 email: mela00@nate.com

Received April 30, 2014

Revised (1st June 13, 2014, 2nd June 16, 2014)

Accepted July 10, 2014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게 되는 시점은 2025년, 2050년에는 1799만 여명을 기록 전체 인구의 37.4%에 이르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1].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부에서는 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 사회부조 등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더불어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노인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짧은 준비기간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등으로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었다[2].

통계청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현황은 2011년도 70,643에서 2012년 71,873으로 1,230시설이 증가 하였고, 입소노인은 2011년도 입소인원 158,839명에서 2012년도 입소인원 167,884명으로 9,045명 증가하였다[1]. 요양시설과 입소노인의 증가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요양시설의 입소노인에 대한연구는 일상생활능력, 자존감과 생활만족도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 노인은 가족과 단절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친숙함, 우울,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능력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3-5]. 그 결과 친숙함과 우울, 일상생활동작능력과 우울, 친숙함과 일상생활동작능력 모두에게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3].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주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왔다. 사회적 지지 중 기능적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지지와 구조적 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 Seo와 Ha[6,7]은 사회적지지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로 나타났다.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게 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 스스로 입소하고자 할 때 혼돈과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자기 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도록 가족 및 친지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8]. 그리고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로움이었다.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불안감과 소외감, 외부와의 차단된 생활이

외로움을 증가시켜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제한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9].

새로운 시설환경에 적응하여 안정된 시기에 접어드는데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입소 후에 가족들로부터 노인의 생일, 기념일, 명절 등 가족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며, 부재 시에는 자원봉사자, 시설직원, 멘토링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10]. 이를 바탕으로 입소 후 6개월 미만 노인들의 시설 부적응을 도울 수 있으며 시설 거주노인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일상 수행능력, 사회적 지지를 높임으로써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만족도는 입소노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현재의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차별화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11-14].

기존 선행연구의 문제점은 입소노인에 대한 일상생활능력, 자존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입소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생활행동지수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스트레스와 생활행동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행동지수는 어떠한가?

셋째, 일상적 스트레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느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설계

연구대상자는 2013년 5월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서울시 N구 입소 노인대상과 강원도 횡성군 S입소시설노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이용하였으며, 5%유의수준과 90% 검정력,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15로 지정하여 최소 표본 수는 88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 입소 노인 대상으로 110명의 표본크기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설문조사의 취지 및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자의 개인별 면담으로 조사되었다.

2.3 연구 도구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15개 문항, 일상적 스트레스 설문 10문항, 생활행동지수는 11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구분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17]가 개발한 문항을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문항과 부양자에 대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문항은 성별, 월 소득, 종교, 연령, 학력, 홀로된 기간, 가장 오래 거주한 장소로 구성하였다. 부양자에 대한 설문문항은 경제를 책임지는 가족, 가족 중 자신을 돌보는 사람, 형제자매 수, 자녀와의 연락빈도, 형제자매와의 연락빈도, 친구와의 연락 빈도 등을 측정하였다.

2.3.2 일상적 스트레스척도

조사도구는 Lazarus 와 DeLongis [15]의 개발하였으며, 김정희[16]가 변안한 문항을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요인은 각각 개인시공간부족, 가족왕래부족 등 2개의 영역으로 9문항에 4점으로 4개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전혀 아니다’(1점), ‘약간 그렇다’(2점), ‘상당히 그렇다’(3점), ‘아주 많이 그렇다’(4점)를 부여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2.3.3 생활행동지수 척도

조사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17]의 진단검사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생활행동지수의 하위요인은

‘신체장애증상’, ‘영양결핍증상’ 등의 3개의 영역으로 7문항에 5점으로 5개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전혀 없다’(1점), ‘거의 드물게’(2점), ‘때때로’(3점), ‘상당히’(4점), ‘대부분’(5점)을 부여하였다.

2.3.4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reliability verifying by Area

	Division	N	Reliability
Daily stress	Lack of personal time and space	6	.766
	Lack of family come and go	3	.781
	Daily stress	9	.768
Life action figure	Physical disorders	5	.941
	Weight Control	3	.671
	Symptoms of malnutrition	2	.636
	Life action figure	10	.840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3.1.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양시설 초고령 노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자보다 여자가 67.9%로 많았고, 연령은 85-94세가 30.2%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사별이 절반으로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36.8%이었고, 홀로된 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이 가장 작았다. 종교는 무교 기독교, 불교, 천주, 원불교 순이었으며, 학력은 초등 졸업이 절반을 넘었으며, 중졸, 고졸, 대졸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거주한 장소로는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순이었다.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으로는 자녀가 가장 많았고, 가족 중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아들, 딸, 기타, 며느리, 사위 순이었으며, 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주 1회가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와 친구의 연락 빈도는 특별 할 때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자녀와의 연락빈도와 스트레스의 관계가 유의미

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N)	Percent(%)
Sex	Man	34	32.1
	Woman	72	67.9
Household monthly income	Supply basic living home	13	12.3
	Less than 1 million won	9	8.5
	100-200million won	31	29.2
	200-300million won	28	26.4
	300-400million won	14	13.2
	400million won more than	11	10.4
Religion	Roman Catholicism	13	12.3
	Buddhism	22	20.8
	Christianity	33	31.1
	Won Buddhism	4	3.8
Marital status	No	34	32.1
	Married	36	34.0
	Single	2	1.9
	Divorce	5	4.7
	Attached	3	2.8
age	Bereavement	60	56.6
	65 Under	12	11.3
	65-74	28	26.4
	75-84	28	26.4
	85-94	32	30.2
Education	95 More than	6	5.7
	Elementary	64	60.4
	Middle School	20	18.9
	High School	15	14.2
	College	5	4.7
Period alone	Graduate or higher	2	1.9
	5 years	11	10.4
	Less than 5-10 years	13	12.3
	Less than 10-15	12	11.3
	Less than 15-20	14	13.2
The oldest inhabited place	More than 20 years	17	16.0
	Spouse has	39	36.8
	City	55	51.9
	Rural	42	39.6
Famil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economic stimulus	Fishing	3	2.8
	Mountain Villages	6	5.7
	Husband	15	14.2
	Wife	9	8.5
	Children	70	66.0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members who	Relative	2	1.9
	Etc.	10	9.4
	Son	42	39.6
	Daughter	27	25.5
	Daughter-in-law	1	.9
	Son-in-law	1	.9
	Etc.	35	33.0

Frequency of contact with children	Once a week	43	40.6
	Once a month	34	32.1
	Twice a month	18	17.0
	House event	5	4.7
Frequency of contact with friends	Do not contact	6	5.7
	Once a week	1	.9
	Once a month	5	4.7
	When a special meeting	52	49.1
Do not contact		48	45.3
Total		106	100.0

3.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응답자 가정의 월 소득과 배우자 유무, 홀로된 기간, 거주 장소,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 자녀와의 연락 빈도, 친구와의 연락 빈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거주 장소는 도시의 평균은 2.35, 농어산촌의 평균은 2.13으로 도시 생활자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은 자녀, 기타, 배우자 순으로 자녀가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응답자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월 1회 이하, 월 2회, 주 1회 순으로 자녀와 연락을 자주 안하는 응답자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친구와의 연락 빈도는 ‘가끔 연락’의 평균은 2.03, ‘연락안함’의 평균은 2.50으로 친구와 연락을 안 하는 응답자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은 거주 지역, 거주형태, 가족 구성, 종교, 교육수준, 경제수준 차이에 의해 위험요인이 증감되었다.

3.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행동지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행동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응답자의 배우자 유무와 연령, 학력, 홀로된 기간,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 가족 중 자신을 돌보는 사람, 친구와의 연락 빈도에 따른 생활행동지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응답자의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유’의 평균은 2.55, 배우자 무의 평균은 3.00으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생활행동의 어려움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85세 이상, 75-84세, 74세 이하 순으로 75세 이상 응답자의 생활행동의 어려움이 더 많았고, 학력은 초졸, 고졸 이상, 중졸 순으로 초등졸업과 고졸 이상 응답자의 생활행동이 가장 어려운

[Table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aily stress

Division		N	Mean	SD	t/F	p
Sex	man	34	2.18	.56	-.945	.347
	woman	72	2.28	.51		
Spouse	Spouse has	39	2.06	.53	-2.901**	.005
	No Spouse	67	2.35	.49		
Period alone	Less than 10 years	24	2.37	.51	2.791*	.044
	Less than 15-20	26	2.33	.49		
	More than 20 years	17	2.37	.50		
	Spouse has	39	2.06	.53		
Place of residence	City	55	2.35	.52	2.235*	.028
	Bass Mountain Villages	51	2.13	.51		
Number of children	More than two people	46	2.27	.53	.612	.544
	3 people	27	2.30	.50		
	4 people or more	33	2.16	.53		
Economically dependent	Spouse	24	1.94 b	.56	5.843**	.004
	Children	70	2.34 a	.47		
	Etc.	12	2.31 ab	.52		
Contact with children	Once a week	43	2.00 b	.45	9.232***	.000
	01 times or less	45	2.43 a	.53		
	Twice a month	18	2.36 a	.44		
contact with friends	Occasional contact	58	2.03	.48	-5.107***	.000
	Do not contact	48	2.50	.46		

* p<.05, ** p<.01, *** p<.001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된 기간은 15-20년 미만, 20년 이상, 10년 미만, 배우자 있음 순으로 생활행동의 어려움이 많았으며,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은 자녀, 기타, 배우자 순으로 자녀가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응답자의 생활행동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가족 중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아들가족, 딸 가족 순으로 자녀가 돌보는 응답자의 생활행동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친구와의 연락 빈도는 '가끔 연락'의 평균은 2.62, '연락안함'의 평균은 3.09로 친구와 연락을 안 하는 응답자의 생활행동의 어려움이 더 많았다.

이 결과는 노인들은 가족관계, 주거 문제,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행동지수 낮았고, 반면 노인들은 자녀지지,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생활행동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4] General behavior of Life Index

Division		N	Mean	SD	t/F	
Sex	man	34	2.76	.78	-.622	
	woman	72	2.86	.76		
Spouse	Spouse has	39	2.55	.75	-3.053**	
	No Spouse	67	3.00	.73		
Age	74 years or less	40	2.46 b	.78	9.516***	
	75-84 years old	28	2.93 a	.75		
	85 years and over	38	3.15 a	.59		
Education	Elementary	64	2.97 a	.71	5.910**	
	Middle School	20	2.33 b	.83		
	High school	22	2.89 a	.70		
Period alone	Less than 10 years	24	2.91	.74	3.331*	
	Less than 15-20	26	3.09	.71		
	More than 20years	17	2.98	.76		
	Spouse has	39	2.55	.75		
Place of residence	City	55	2.93	.70	1.363	
	Urban mountain villages perch	51	2.73	.82		
Economically dependent	Spouse	24	2.31 b	.72	9.785***	
	Children	70	3.04 a	.66		
	Etc.	12	2.67 ab	.94		
Caretaker	Son family	43	3.00 a	.76	4.761*	0.1
	Daughter family	28	2.98 a	.61		
	Etc.	35	2.52 b	.80		
Contact with children	Once a week	43	2.66	.72	2.628	0.7
	01 times or less	45	2.88	.77		
	Twice a month	18	3.13	.78		
Contact with friends	Occasional contact	58	2.62	.79	-3.331**	.00
	Do not contact	48	3.09	.64		

* p<.05, ** p<.01, *** p<.001

3.1.4 일상적 스트레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느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상적 스트레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느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느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233$ 으로 전체 변동의 23.3%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왕래부족 스트레스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느낌과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왕래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During the last week of the daily stress and feel Behavior

Division	The feel and action of the past week					VIF
	B	The standard error	β	t	p	
(Constant)	1.991	.285		6.982***	.000	
Daily stress	Lack of time and space	.155	.118	.118	1.314	.192 1.084
	Lack of family come and go	.404	.083	.436	4.851***	.000 1.084
$R^2 = .233$, adj $R^2 = .218$, F = 15.619***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생활행동지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가정의 월 소득과 배우자 유무, 홀로된 기간, 거주 장소,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이 의미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은 거주 지역, 거주형태, 가족구성, 종교, 교육 수준, 경제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다[4,9]. 따라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유무, 연령, 가족구성원 등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행동지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개인시공간 부족, 가족왕래부족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성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신체장애증상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개인시공간부족, 가족왕래부족 스트레스와 정의 상관성이 있었고, 영양결핍증상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가족왕래부족 스트레스와만 정의 상관성이 있었다. 이 의미는 노인들

은 가족관계와 건강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낮았다. 또한 노인들은 정서적 지지 및 자녀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다[6,7].

셋째, 일상적 스트레스가 지난 일주일동안의 느낌과 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왕래부족 스트레스만 생활행동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왕래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 중에 가족관계와 건강문제, 그리고 상실감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지지 중에는 정서적 지지와 친구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일치하다[7]. 따라서 가족왕래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행동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배우자 유무, 홀로된 기간, 거주 장소,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입소노인 스트레스의 예방정책의 기초적인 대안의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입소노인들은 가족관계와 건강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행동지수가 낮았다. 향후 입소노인의 생활행동지수 향상에 대한 정책의 기초적인 대안의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왕래부족 스트레스만 생활행동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노인의 생활행동지수 개발정책의 기초적인 대안의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자살충동 예방정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1]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aterials, 2013.
 [2] H. H. Lee, G. N. Lee, W. J.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Long of Long-Term Care Insurance : an AHP Approach",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49,

- pp.193-214, 2010.
- [3] Y. S. Lee, "Relationships among Familiarity, Depression, Cognition, and Activity of Daily Living in Elders Residing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Dept. of Major in Gerontology & Dementia Nursing,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2012.
- [4] H. S. Kim, S. J. You, K. R. Han, "The Relation of Cognitive Function, Physical Health,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Elderly Women in the Community", Vol.4, No.2, pp. 163-175, 2002.
- [5] S. S. Mun, "A Study on an Effect of Daily Life Performance Ability and Social Support of the Aged on Their Quality in Life",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ong Eui University, 2008
- [6] I. K. Seo, M. S. Ko, "Effects of the Elderly's Abuse Experiences on Their Suicidal Ideation & Mediation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1), pp. 127-157, 2011.
- [7] K. P. Ha, S. H. S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Da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7,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7.278>
- [8] H. K. Cho, "A Study on the Effects of Daily Living,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2013.
- [9] H. K. Le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Home Adaptation in Nursing Home Resident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2008.
- [10] K. Y. Kang, "The effect of Daily Living, Social support, and Lenth of stay on Adaptation to Nursing homes", Department of Gerontological Car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010.
- [11] S. M. Jung, "The Predictive Effect of Melancholy Disposition and the Level of Facility Service Satisfa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of Senior Citizens in the Facilities",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2013.
- [12] E. Y. Cho, "A Study on the Improvement Way of the elderly Leisure Progra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2005.
- [13] W.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stitution Residents",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14] H. K. Oh, S. K. Lee, S. R. Sok, K. B. Kim, "The Relations among ADL,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stitution Resi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3, NO.1, 2007.
- [15]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1988.
- [16] J. H. Kim, "Evaluation of stress and coping in relation to emotional experience", Korea Journal of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7 No.1, 1995.
- [17] Community Health Survey, "2010 healthy happy positive community healthy investigation", 2011.

최 정 희(Jung-Hee Choi)

[정회원]



- 2014년 6월 ~ 현재 :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학과 석박통합과정 중
- 2014년 6월 ~ 현재 : Rooters Field, Inc. 관리이사

<관심분야>

교육학, 풍수인테리어, 문화콘텐츠, 상담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7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IT융합, 복지상담,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정보보안